

2017년 봄학기(4~8월) 오사카대 교환학생 활동 보고서

전기정보공학부 구연재

이번 2017년 봄학기에 오사카대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교환학생 지역에 비해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크지만, 영어로도 일본어로도 한번도 외국인과 대화해본 적 없는 제가 혼자 외국에서 4월동안 이 곳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는게 아직도 신기하네요!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후기는 인터넷상에 많지만 오사카대 교환학생 후기는 거의 찾기가 힘들어서 아무 정보 없이 혼자 갔더니, 처음에 적응할 때 꽤 고생을 많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후기에는 그런 기본적인지만 알면 좋은 정보 위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차

- 7-8월 : 서울대 공대 대외협력본부에 서류 제출
- 10월 : 오사카대에 자기소개서 및 여권사본 등의 서류 제출
- 12월 : 합격 안내
- 1월 : 기숙사 신청
- 2월 : 기숙사 신청 확인 및 CESR, 비자 발급받음
- 4월 : 오사카로 이동, 학기 시작

2. 가기 전 준비

- 기숙사 : 합격하고나면 메일로 기숙사 신청에 대한 안내를 보내주십니다. 기숙사에 들어가기 3개월 전에 신청해야했어서 저는 1월에 신청했습니다. (학기가 4월 3~10일쯤에 시작됩니다.) 기숙사에는 종류가 여러개 있는데, 제 주변 교환학생들은 대부분 토요나카 기숙사(Toyonaka International House) 또는 쓰쿠모다이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부 1인 1실입니다.

저는 토요나카 기숙사에 살았는데, 위치가 정말 좋았습니다. 교환학생 수업은 대부분 토요나카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데 기숙사에서 수업 10분 전에 출발하면 충분합니다. 또, 방안에 욕실이 딸린 화장실, 가스렌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베란다 전부 다 있어서 거의 한국에서 살던 원룸보다 좋은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격은 기숙사비+가스비+전기세 해서 한달 평균 25000~30000엔 정도 들었습니다. 단점을 굳이 꼽자면, 전기세와 가스비를 자기가 쓴 만큼 따로 내야한다는 것과, 공동생활하는 '기숙사' 라기보다는 개인개인이 굳이 간섭하지 않는 '아파트' 느낌이 강해서 학생들간의 교류가 적다는 점일듯 합니다.

쓰쿠모다이 기숙사의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지만 한달에 20000-25000엔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기숙사비만 있고, 전기세 등은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화장실, 부엌은 층마다 공용으로 있기때문에 방에는 냉장고, 침대, 책상 등 간단한 가구만 있습니다. 대신에 기숙사의 공동생활 느낌이 강해서 1층 로비에

항상 교환학생들이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단점은 학교 캠퍼스와 꽤 동떨어져있어서 자전거와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하고, 모노레일을 타고 등교한다면 교통비가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 환전 : 환전 수수료가 적은 체크카드를 만들어가서 세븐일레븐 ATM 에서 환전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하면 수수료가 정말 거의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휴대폰 요금제 : 유심칩으로 개통해서 데이터만 썼습니다. 저는 여러 MVNO 서비스 업체(빅심, 비모바일, Y모바일, 라인모바일 등)들의 요금제 등을 비교해보고 라인모바일로 골랐습니다. 어플을 이용해 통화가 가능하다보니 전화는 4개월동안 딱히 쓰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데이터만 사용하는 요금제를 했습니다. 기존 한국에서 쓰시던 휴대폰은 장기정지 신청하고 가시면 됩니다.

3. 학교생활에 알아두면 좋은 것

- 캠퍼스 : 총 3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토요나카 캠퍼스, 스타 캠퍼스, 미노 캠퍼스. 각각 토요나카시, 스타시, 미노시에 있습니다. 평일엔 셔틀버스가 20분에 한 대 다니며, 각 캠퍼스 간 소요시간은 버스로 20~30분정도입니다. 교환학생들을 위한 수업은 주로 토요나카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또한 1학년들 수업이 대부분 토요나카 캠퍼스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 캠퍼스에는 고학년 전공 및 공대 연구실들이 많은 느낌이며, 미노캠퍼스는 외국어관련 학과 등의 수업 및 연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험 : 처음 일본에 가면 시약소(시청)에 가서 재류카드 등록 및 건강보험 신청 등을 해야합니다. 아마 학교 도착하면 알려주시는 담당 멘토분이 함께 가서 도와주실텐데, 혹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냥 시청만 찾아가면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민연금도 내야한다며 안내를 해줄수도 있는데, 나중에 학생증 발급받고나서 다시 찾아가서 학생증 보여주면 국민연금 면제자로 등록해줍니다.
- 수강신청 : 학교 도착하면 나눠주는 종이에 초안지 서명받듯이 교수님들께 서명 다 받고서 공대 학생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교통 : 학교를 따라서 모노레일 이라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일반 지하철보다 2배쯤 비싼 가격입니다. 학교 캠퍼스 간 이동하려면(3정거장쯤) 편도로 280엔쯤 들기때문에 웬만하면 셔틀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쓰쿠모다이 기숙사에 산다면 이 부분이 생활에 있어 가장 힘든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4. 실제 학교 생활

- 수업 : 안타깝게도 공대 과목중에 영어로 열리는 과목이 1~2개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 전공에서는 영어강좌가 아예 없고 전부 일본어 강좌에, 일본어 교재를 사용하는 강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대에서 열리는 수업을 꼭 들어야 한다고 해서 결국 세미나 수업과 간단한 1학년 전공 프로그래밍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일본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알아두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교환학생을 위한 강좌는 다 영어로 진행되며 대부분은 널널한 교양강좌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교수님에따라 과제, 발표, 토론, 레포트등이 많은 강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강좌는 한학기동안 얻은게 없다고 느낄 정도여서, 확실히 과제나 토론같은게 많은 강좌가 학기 끝날 때 성취감이 컸습니다.
특히, 일본어 강좌는 매우 추천합니다. 레벨별로 여러 강좌가 있는데, 전부 주 3회수업에 아침 1교시 수업이라 처음에 신청할땐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막상 수업 들어보면 교환학생들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재미있게 진행되어 좋았습니다. 저는 JA300 수업을 들었는데, JA400 레벨부터는 영화나 드라마도 보며 더 재미있게 수업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제 일본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만족도가 큰 수업이었습니다.
- 연구실 : 어떤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연구실을 배정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서울대 공대에서 오사카대 공대와 맺은 교환 프로그램 (部交換) 을 통해 가는거라면 연구실을 배정받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다른 교환 프로그램으로 갔다고 착각을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4개월동안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려고 교환학생을 신청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실 교수님께 그 당황스러움을(?) 말씀드렸더니 연구실에 나오는 것은 저의 선택이라면서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주 2~3회 연구실에 나가긴 했는데, 딱히 제게 주시는 일도 없었고 연구실 조교님께서도 그냥 책상 쓰러 나온다고 생각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 시간표가 조금 수정되고나서 연구실을 금요일밖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냥 담당 멘토님께 말씀드리고 그 이후로 연구실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 후기 보면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했다는 후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연구실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 교류 : 교환학생들 및 일본인들과 단체로 교류할 수 있는 행사는 주로 BSP(Brothers and Sisters Program in Osaka University) 라는 국제교류 동아리에서 주최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체크하시면 그때그때 행사 알기에 좋습니다. 학기 초에 각 캠퍼스에서 웰컴파티를 여는데, 이 웰컴파티를 꼭 참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정말 아는 사람 한 명 없어서 이렇게 4개월동안 기숙사에 있어야 하는건가 싶을 때쯤 웰컴파티에서 한 학기동안 의지하고 같이 놀러다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한학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학기

중간중간에도 원데이 트립이나 바베큐파티등 자잘한 행사들이 많기때문에 교환학생 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매주 점심시간마다 토요나카 캠퍼스의 카르치에(カルチエ) 라는 카페에서 Multilingual Cafe가 운영되고 있고, 학생회관에서는 일본어 카페라는게 운영되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고싶은 일본학생들이나, 일본어로 대화하고 싶은 외국 학생들이 점심을 먹으며 교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면 이런 교류에 자주 참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심가는 서클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가입 신청을 해보세요!! 한국대학교들은 학과 중심으로 대학 생활을 한다면 일본대학교는 부활동, 서클 중심으로 대학생활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학기초에는 한학기만 활동할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 신청도 안해봤는데, 4월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시기가 지나면 5월부터 교환학생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서클활동을 꼭 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 학교 근처 시설 : 일단 이곳에는 대학가라는 개념이 딱히 없었습니다. 학교 근처가 그냥 일반 동네와도 같아서, 한국처럼 대학생들을 위한 카페나 식당들이 몰려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토요나카 캠퍼스 앞 이시바시 역 근처에는 시장이 있어서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이 몇개 있었습니다. 인도카레집인 강가마하루(ガンガマハル)와 이탈리아 레스토랑 ALBAR 가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처음에 이걸 알아내기위해 만나는 일본친구마다 물어보고 다녀야 했습니다...) 카페의 경우에는 'PRECIOUS' 라는 카페와 '시루카페(知るカフェ)' 라는 곳이 오사카대 학생증이 있으면 음료가 무료인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기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 그 외 일본의 축제들 : 봄학기에 오사카에 있으면 일본의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여행때는 기간에 맞춰서 오기도 힘들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을 즐길 수 없으니 교환학생 생활을 하며 참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에는 벚꽃놀이를 갈 수 있고, 5월에는 1주일 연휴인 골든위크가 있습니다(이 때 오사카대의 축제도 열렸습니다). 7월부터는 교토의 기온마쓰리, 7월 말쯤에 있는 오사카 텐진마쓰리 등의 축제가 있으며 8월까지도 요도가와하나비 등의 큰 규모의 불꽃놀이를 근처에서 합니다!

5. 느낀점

왠지 교환학생 다녀오고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4개월이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느낀점을 써야 할 것만 같은데, 저의 경우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사실 초반에 적응하는 시기에는 '도대체 좋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만나는거고, 다양한 경험들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거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평범한 나날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보면 대부분이 그런 평범한 나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괜히 외국이라는 이유로, 익숙한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에서와 비슷한 경험을 해도 굉장히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특별한

4개월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시내 나가서 맛있는 것 먹고, 카페를 가고, 노래방을 가는 것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던 것들인데, 이곳이 익숙하지 않은 곳이고, 그 친구들중에 외국인 친구도 있다! 라는것은 평범한 일도 충분히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부침개를 만들어먹으며 괜히 ‘비오는 날 막걸리랑 함께 먹어야해!’ 라고 얘기해주기도 하고, 불닭볶음면을 선물해주며 ‘날 싫어하게 될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사소한 대화까지도 소소하지만 참 즐거웠습니다. 또 4개월동안, 그 ‘익숙하지 않았던 곳’ 이 점점 ‘익숙한 곳’ 이 되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여행지라고 생각했던 곳이 거주지가 되어보는 경험은 누구나 꿈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교환학생을 다녀오거나 하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여행을 하며 한번쯤은 “관광지 돌아다니는게 아니고, 그냥 평화롭게 카페가고 식당가고 골목 걸어나다니면서 일주일만 살아보고싶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텐데, 교환학생 생활이 바로 그런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이곳에 익숙해졌다는 기분이 들어 괜히 혼자 뿌듯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리적인 만족감 외에도, 실제로 외국어 말하기 능력이나 자신감이 굉장히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스러운 교환학생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2년동안 한국에서만 지내왔고,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가기 이전에 외국에서 조금이라도 생활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친구는 커녕 외국인과 제대로 대화를 해본 적도 없는데, 이곳에 와서 영어로 토론을 하고, 팀플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왔는데 막상 엄청난 몇가지 영어 실수를 범하고 나니 외국인 친구들은 이런거 신경도 안쓰는구나 싶어서 그 뒤로는 부담을 많이 없애고 즐겁게 팀플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영어보다도 일본어가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일본어를 제대로 배운건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전부라서, 자기소개 등과같은 간단한 문장만 몇개 구사할 줄 알았는데, 이곳의 일본어 수업이 체계적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일본인 친구들과 사전 찾아가며 열심히 대화한게 큰 도움이 되어서 이제는 친구들의 배려를 받으며 열심히 일본어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도 외국어가 제 인생에 이런 만족감을 준 적이 없었는데, 다른 언어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한다는게 이렇게 재밌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기 전까지는 “문화교류” 에 대해서 굉장히 거창한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사실 그냥 다른 문화 사람들과 이렇게 별 거 아닌 대화만 해도 즐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 하고나면 다시는 오사카 여행 안가려고 했지만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겨울에 다시 가고싶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BSP(Brothers and Sisters Program in Osaka University) – 1 day trip